

문서번호	국제표준협력과-
보존기간	1년
보고일자	2011.03.

기안	과장	국장	원장

APEC SCSC I 총회 및 관련 회의 참가 및 결과 보고

2011. 03

기 술 표 준 정 책 국
국 제 표 준 협 력 과

1. 출장 개요

- 회의 참가자 : 국제표준협력과 이위로 연구관 외 4명
 - * 한국표준협회 최동근 선임(표준교육 프로젝트 수행중, 고려대 김영균 교수(표준교육 워크숍 발표), 이기석 책임연구원 및 정순은 선임 연구원(우수규제관행 컨퍼런스 발표)

- 회의 일정 : '11.2.26(금) - 3.8(화)
 - PASC Executive Committee 회의 : 2.27(일)
 - APEC 국제표준교육 워크숍 : 2.28(월)
 - APEC 표준적합성분야 우수규제관행 컨퍼런스 : 3.1(화)~2(수)
 - APEC 그린빌딩 및 녹색성장 컨퍼런스 : 3.3(목)~4(금)
 - APEC 표준적합소위원회(SCSC) 총회 : 3.5(토)~6(일)
 - 한중일 표준화 회의 : 3.5(토)

2. 주요 활동결과

-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APEC 프로젝트인 **표준화교육 이니셔티브 추진현황 소개 및 향후 계획 발표**
 - 2010년 발간한 APEC 표준화 교재 소개 및 2011년 시범교육 계획 상호 공유
 - * 표준전략 등의 내용 7개국 15개 대학이 표준화 시범 강좌 개설
 - * 표준의 미래형 상품으로서 기업이 요구하는 표준교육 실시경험 소개
 - 국제표준교육워크숍을 통해 APEC 회원국간 **표준교육 중요성·경험·사례 등 발표하고, 향후 비전·협력 방안 논의**
 - * 2011년 6월 표준학술 심포지움 개최 계획 소개 : 국가표준화 시스템의 역사, 표준의 저작권, 표준과 특허

- 한중일이 표준협력회의를 통해 ISO에서 추진중인 지적 재산권 대응방안 및 향후 계획 논의
 - 11.3.14~15(스위스) 개최되는 ISO 지재권 컨퍼런스에서 일본과 중국은 반대의견 발표 예정, 한국의 의견 발표 필요
 - * 일본 : Yamamoto(METI 국장), 중국 : Ms. Liu Chungqing (CNIS, 지재권 전문가)
 - 동북아표준협력포럼(6월, 부산)과 연계한 한중일 IPR 워크숍 개최를 우리나라가 제안하였으며, 중국과 일본도 동의

- PASC EC(아태평양 표준협력회의 집행위원회)에서 2012년 한국 개최계획 소개 및 34차 PASC 방콕회의 의제 검토
 - 2012 PASC 여수개최 일자, 장소 및 주요준비현황 소개
 - UNIDO 및 ABAC(기업자문위원회) 등과 협력기구 메커니즘과 Vienna 협정관련 CEN Leads에서 ISO Leads 전환 방법 논의

- 2011 APEC SCSC I 총회 및 관련 컨퍼런스 참가, APEC 회원국 정책동향 수집
 - 무역촉진·국제표준부합화·기술인프라 개발협력 등 표준적합성 소위원회 7개분야 추진현황 소개·논의 및 향후계획 결정
 - 규제컨퍼런스는 규제정책개발시 투명성확보가 우수규제 관행의 기반, 규제완화를 위한 각국 정부 노력 등 소개
 - * 우리나라는 산업기술시험원이 참여하여 부처별 인증제도 및 마크의 중복개선을 추진한 KC 마크 소개 도입배경 및 효과 소개
 - 에너지 절약·탄소감소 시행의 핵심이 그린 빌딩임을 인식하고, 각국이 그린빌딩 육성 정책(인센티브 등) 소개

3. 주요 의제별 회의결과

3.1 APEC SCSC I 회의

1) APEC내 상위 포럼 및 타 포럼과의 협력

- 의장 (Julia Doherty 미국 USTR 선임과장)은 총회전에 개최한 표준교육워크숍, 우수규제관행 및 그린빌딩/녹색성장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한국 및 미국에 깊은 감사를 표함. 주요 결과 및 권고사항들은 고위관리회의에 보고되어 '11년도 APEC 활동의 우선순위에 반영될 것임을 보고
- APEC 중앙사무국은 '11년도 예산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 총 71개(SCSC는 5개)의 신규 프로젝트 컨셉노트(수요조사)가 제출되었으며, 예산제약으로 인해서 이중 일부(SCSC는 1개)만이 지원예정으로 예산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
- 무역투자위(CTI) 의장이 참석하여 표준적합성소위(SCSC)에서 공급망(SCM), 식품안전(Food Safety), 녹색성장(Green Growth), 규제협력(Regulatory Cooperation), 규제협력선진체계화(ARCAM) 등의 논의에 무역투자위를 적극 보조해줄 것을 요청
 - * ARCAM: APEC Regulatory Cooperation Advancement Mechanism
- 규제협력선진체계화(ARCAM)와 관련하여 잠수함통신케이블 보호 및 스마트그리드 두 개의 제안이 제출되었으며, 무역투자위는 5월 2차 회의때에 관련 논의 예정

- ARCAM의 시범추진은 '11~'12년동안 추진된 후에 평가될 예정이며, 개도국 전문가의 참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될 것임을 설명
- 미국은 스마트그리드가 국가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,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함. 일본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국제표준개발에 대한 중요성 및 ARCAM의 목적과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미국이 제안한 스마트그리드의 ARCAM 시범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
 - 관련 논의가 기술적인 문제점에 치우치지 보다는, 회원국의 다양한 관점과 비전을 공유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함
 - 이 분야 연구 및 논의는 현재 진행중인 IEC 및 다른 표준화 기구의 논의를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

2) 무역 촉진

- 베트남은 '10년도 무역촉진 공동이행계획(TF CAP) 결과 및 '11년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, 베트남은 각 분야별 담당국가 가 '11년 2차회의 및 '12년 1차회의에 진행경과를 정리하여 발표해줄 것을 요청
- 일본은 최근 WTO/TBT 위원회 회의결과를, 중국은 WTO/SPS 회의결과를 회원국에 보고
- 뉴질랜드는 GRP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WTO/TBT 협정문의 이행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메카니즘을 선택하고 설계하는 방법의 유용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, 향후 관련 논의에 회원국들이 관심 및 참여 요청

- APEC 중앙사무국에서 고용된 Graeme Drake 컨설턴트는 표준적합성분야의 무역촉진비용 측정을 위한 핵심성과지표 (KPI) 측정방안을 보고
- 미국은 무역촉진TF 회의가 '11년도에는 개최되지 않으며, '12년 1차회의에 개최가 필요한지 한국과 협의할 예정임을 보고

3) 국제표준 부합화 및 국제표준화활동 참여

- 일본은 '10년도 국제표준 자율부합화계획(VAP)에 따른 해당 표준의 부합화 조사결과 및 '11년도 우선추진분야를 발표하고 회원국들의이 '11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5월말까지 마치고, '11년도 2차 회의때 보고 예정
- 대만은 자율부합화계획(VAP)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, SCM분야의 RFID 표준 사례를 공유 예정

4) 식품 및 제품 안전

- 미국은 식품안전사고를 관리하고 공급망에서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는 식품안전분야 역량개발 프로젝트(CTI01/2010T)를 중국 베이징에서 '10.11.5~7일간 개최한 결과 보고
- 미국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는 식품안전 시험역량개발 프로젝트를 보고하면서, 공동후원국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
- 미국은 특히 APEC 특별지역기구 및 World Bank에서 추진 해온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향후 2년간 훈련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, APMP 등의 특별지역기구들은 미국의 식품안전 시험역량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표명

- 미국은 '10.2월에 호주에서 개최된 식품안전 수출인증간담회의 논의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자체예산으로 '적절한 수출인증의 우수사례'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임을 설명하고, 프로젝트에서는 전자인증 뿐만 아니라 수출인증에 대한 국제가이드를 포함할 예정임을 설명
- 중국과 호주는 '11.5.14~17일간에 미국 몬타나(빅스카이)에서 개최될 식품안전협력포럼 및 행사(CTI 21/2010T)에 대해 보고
- 인도네시아는 '10.9.27~30일동안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식품안전 상호인정 준비프로젝트 및 '10.11.9~12일 동안 북경에서 개최된 ISO 22000 식품안전관리체계 훈련과정 개최결과 보고
- 미국은 APEC에서 추진중인 완구류안전 이니셔티브 관련 보고가 '10.10월에 WTO/TBT 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, '11.2.22-25일에는 미국 올란도에서 자체예산으로 개최된 국제소비재건강·안전협회(ICPHSO) 연례회의 및 훈련심포지엄에 결과 보고

5) 전기전자용품 및 식품 관련 상호인정 (APEC EEMRA)

- 호주는 '11.5.23~26일간 미국 일리노이 Northwestern 대학에서 개최될 전기전자 MRA 공동자문위원회 계획을 소개하면서, 동 회의에서 '10-'13년도 작업계획을 검토 예정 설명

6) 표준 및 적합성 교육

- 한국은 교재개발 완료 및 TILF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표준교육 3단계 시범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발표
 - 3단계 시범교육에 참여를 신청한 19개 대학중, 6개국 15개 대학(페루 1개, 일본 2개, 중국 1개, 베트남 1개, 인도네시아 2개, 한국 8개) 이 최종 참여하기로 확정됨을 보고함.
 - 3단계 시범교육의 학기운영은 '11.7월에 종료되어, 9(10)월에 시범교육 결과를 보고하고 APEC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임
- 한국과 미국은 표준교육 워크숍의 개최 결과를 보고하고, 회원국은 워크숍에서 제안한 주요 권고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및 추진할 것을 합의
- 한국은 2011년도에 개최될 표준학술 및 교육 관련 행사를 회원국에 안내하고, 6월에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표준학술심포지엄 및 중국 항주에서 개최되는 ICES/WSC 워크숍 참여를 독려
- 미국과 대만이 표준교육 추진동향 업데이트 하고, 대만은 22개 분야로 구성된 표준화 교재개발이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

7) 산업계와의 협력

- 호주는 아르헨티나에서 '10.10월에 개최된 세계와인무역그룹(WWTG)의 최신 논의결과를 발표하고, 이어 미국은 '11.9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역내 국가별 와인관련 규제 상호연계성을 증진하기 위한 APEC 와인규제컨퍼런스(CTI40/2010T)에 대해 발표

- 호주와 APMP 등 역내특별기구들이 컨퍼런스 개최를 적극 지지하였으며, 멕시코도 미국에 관련 논의증진에 감사를 표하면서 와인허가(permits) 및 라이선싱 등을 의제 포함 요청

8) 신규 프로젝트

- 의장은 표준적합성소위(SCSC)에서 '11.1 예산심의회에 총 5개의 프로젝트 컨셉노트(수요조사)를 제안하였으나, 이중 1개 컨셉노트만이 승인됨을 보고
- 러시아는 '학교급식시스템 표준화' 와 '기술규제 및 표준의 평가 방법론'에 대한 방법론을 발표하고 회원국들의 코멘트 요청
- 미국은 '정보통신(ICT) 제품의 에너지효율 규제'의 조화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하고, 컨셉노트를 예산심의위원회 2차 심의에 다시 제안할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예정
- 중국은 '액체화물보관 및 이송절차 시험방법'의 조화를 위한 워크숍/훈련과정에 대한 컨셉 노트 발표

9) 차기 SCSC 회의 일정

- '11.9.14~21일까지 8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관련 행사 및 SCSC 총회가 개최될 예정임
 - 9.14~15 : 에너지관리 표준 컨퍼런스
 - 9.16~17 : 태양광 기술표준 컨퍼런스
 - 9.18~19 : 와인규제협력 포럼
 - 미정 : ICT 에너지효율 컨퍼런스 (프로젝트 통과시 개최)
 - 9.20~21 : APEC SCSC II 회의

- '11.9월까지 APEC 표준교육 시범교육 과정 운영을 완료하고, 동 회의에 개최되는 컨퍼런스에 대한 한국 연사를 3월중에 미리 추천 필요

3.2 제38차 PASC EC 회의

□ 일시 및 참석자

- 일시 및 장소 : 2011.02.27(일) 09:00~12:00 / Horizon Room
- 참석자 : 미국, 일본, 중국 등 7개국 20여명

□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

- 파일럿 프로젝트 보고
 - ISO/TC 22(Road Vehicles)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(JISC 주도)
 - 일본, 한국, 미국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, 필리핀 참여(일본이 전문가 여비 지원)
 - 우리나라는 강원대 탁대오 교수가 동 프로젝트 (전기 이륜차 및 전기차 표준화) 참여
 - ISO/CASCO의 CPC(의장정책조정위)는 유럽중심구조가 심화되어 지역간 균형적인 의견교환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APEC 회원국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조로 전환 필요
 - * 정회원 지명시 지역적 및 경제적인면 등 고려하기위한 2011년 4월 13일 CPC 회의에서 논의예정
- PASC 액션플랜 검토
 - ABAC(기업인자문위원회)의 위원을 2011.4월 개최되는 34차 PASC(태국)에 초청하고, PASC와 ABAC의 비즈니스 세션 개최예정

- Vienna 협약 관련으로 ISO Leads 보다는 CEN Leads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3가지 정책방향 설정 : CEN Leads 감소, EC Directive와 관련된 기술규정만 CEN Leads 인정, CEN Leads는 ISO Leads로 전환
- PASC 멤버에게 Twinning and Partnering 프로그램 참여 촉구
- 지역표준화기구와 협력 : COPANT의 주요문서 PASC 회원 공유, GSO 간사를 37차 PASC 총회에(11. 4월) 초청
- UNIDO와 미래협력을 위한 메커니즘 고려
- 카자흐스탄이 PASC 회원국 신청, BIS(인도 표준화기관)의 신규멤버 가입 환영
- ANSI 주도(TILF 펀드) EMS(Energy Management Standards) 프로젝트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
- 멕시코, 콜롬비아가 2번 연속 미참석에 따라, 3회 연속시 회원자격 박탈되는 내용을 통보
- 미래 이니셔티브 주제를 1년안에 결정 : 표준이 기술적 이슈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도구로서 활용가능 정도, 중소기업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참여, 자국시장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 잠식 등

3.3 APEC 표준교육 워크샵

회의의제(2.28)

- ◇ Session 1 : 산업계, 정부, 대학에서 표준교육의 필요성
- ◇ Session 2 : 대학표준교육프로그램의 컨텐츠의 개발과 검증방법
- ◇ Session 3 : 다양한 전공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주제

- 표준화 교육추진에 관한 기업, 정부 및 학계 의견
 - APEC 내 각 참여 회원국의 표준화 교육 및 학과정 개설 노력에

대한 현황을 소개, 아국을 주도로 많은 회원국이 표준화 관련 학과정이 개설, 그 노력을 여러 관계자가 한국에 감사

* 조 바티오 (ANSI 회장/CEO), 패트릭 갈라거(NIST 원장)의 표준교육은 컨버전스 시대에 중요성 증가 역설

- 표준화분야에 대한 대학교육 확대를 통해 학생의 실질적인 산업활동으로의 참여가 연계되어야 함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 트렌드를 파악, 학과정에 적용 강조

* 고려대학교 김영균 교수 : 삼성의 Global Standard 석사학위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 소개

○ 표준화 분야의 대학과정 도입에 따른 기회 요인 및 난해성

- 학계의 표준화 과정 운영은 정부와 산업계에 유익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표준활동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부족
- 표준화와 저작권시스템의 연계는 기업의 창조력 및 창작성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이는 필수 요건으로 기업 측면에서 극복이 필요

3.4 우수기술규제관행(GRP) 컨퍼런스

회의의제(3.1-2)

- ◇ Session 1 : 기술규제의 최근 동향 및 사례
- ◇ Session 2 : 우수기술규제관행 이행 및 15년후 예측
- ◇ Session 3 : 국제시장의 규제 및 협력 방안
- ◇ Session 4 : 투명성 증진에 대한 장벽
- ◇ Session 5 : 표준개발의 리더간 토론(표준개발 및 활용에서 규제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고)
- ◇ Session 6 : 기술규제 제고 및 비용절감에 관한 기업 및 이해관계자 관점
- ◇ Session 7 : 시험 및 적합성평가관련 기술장벽 제거
- ◇ Session 8 : 기술규제제도 향상을 위한 적합성평가 사례

- 우수 기술규제 관행과 관련한 회원국과의 정보 공유 및 의견 교환
 - APEC 국가의 우수규제관행 방향 및 성과 : 미국은 국가차원의 강제 적합성평가제도의 운영을 최소화하고 민간에 이양, 리콜제도 강화로 불량제품의 유입 지속 감소
 - 뉴질랜드는 규제법률의 철폐가 아닌 규제대상 기업 및 민간에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지원방법 추진
 - 캐나다는 규제완화의 효과를 평가하기위한 OECD-APEC 통합점검목록을 이용, 성과관리, 서비스절차·비용절감 효과 평가
- 글로벌 시장의 규제시 협력효과 및 규제결과 향상을 위한 적합성평가제도의 운용
 - APEC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회원국 - 칠레, 멕시코, 대만, 페루,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태국이 활동
 - 국제시험소인정제도(ILAC)의 운영을 통해 중복시험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자체적인 시험소 인정제도 운영에 따른 국가 행정력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음을 강조

3.5 그린빌딩 컨퍼런스

회의의제(3.3-4)

- ◇ Session 1 : 스마트 빌딩
- ◇ Session 2 : 에너지효율과 보존에 관한 APEC 전문가 그룹 작업
- ◇ Session 3 : 빌딩건축시 지속가능성에 관한 APEC 조사 결과
- ◇ Session 4 : 지속가능 빌딩의 제고 정책
- ◇ Session 5 :빌딩관련 법규
- ◇ Session 6 : 지속가능 빌딩의 사용 원자재 및 제품에 대한 법규 및 표준
- ◇ Session 7 : 지속가능한 빌딩관련 성능 목표와 평가
- ◇ Session 8 : 그린빌딩의 미래:

- 미국의 '에너지 스마트 이니셔티브'와 '스마트 빌딩' 소개
 - '에너지 스마트 커뮤니티 이니셔티브'는 스마트빌딩, 스마트 그리드, 스마트교통, 스마트근무 네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프로그램
 - 이중 스마트 빌딩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강조. 스마트 빌딩은 신규빌딩건축 및 기존건물보강, 절연재 및 창문등의 전자재시험 및 평가시에 에너지효율을 적용
- 대만의 '에너지절약 및 탄소감소 시행계획과 스마트 빌딩' 소개
 - 2008년도 '에너지절약과 저탄소 기본계획'을 수립한 이후로, 10개의 벤치마킹 프로젝트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
- 일본의 'CASBEE (건축물종합환경성능평가)' 추진현황 소개
 - CASBEE는 건물을 환경성능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기 위한 기법으로, 국토교통성 주도 하에 산·학·관 공동 프로젝트로 개발이 진행
 - CASBEE는 C(열등), B-(약간 열등), B+(양호), A(대단히 양호), S(우수)의 5단계로 구분하여 건축물 평가등급을 부여

3.6 한중일 표준협력 회의 개최

□ 개요

- 일시 : '11.3.5(토)
- 참가자 : 일본(나가노 등 4명), 중국(이동광 등 4명), 한국(이위로 연구관, 최동근 선임)

□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

- 한중일이 표준협력회의에서 동북아표준협력포럼 및 ISO 지재산권 규정(GEN9) 개정 등에 논의함
 - 한국이 6.22에 동북아표준협력포럼과 연계하여 개최예정인 표준 학술심포지엄에, 중국·일본이 개최에 동의하면서 적극적인 참여 및 관련 연사추천에 협조해 줄 것을 합의함
 - * 표준학술 국제심포지움 주제: **표준의 저작권(copyright)**, 표준과 특허 (patent), 국가표준화 시스템의 역사 (historical development)
 - ISO에서 지적재산권 규정(GEN 9) 개정 대응에 공조하기로 협의함
 - * 11.3.14~15(스위스) 개최되는 ISO 지재산권 컨퍼런스에서 **일본과 중국은 반대의견 발표 예정**이며, 일본이 한국도 발표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
 - * 일본 (Mr. Yamamoto, METI 국장) - 무료열람 관련 이슈 발표 예정
 - * 중국 (Ms. Liu, CNIS 연구위원) - 부합화표준 저작권의 이전 문제 발표 예정

4. 관찰 및 평가

- 워싱턴 SCSC 회의에서는 표준교육, 우수규제관행, 그린빌딩, 스마트그리드규제협력, 와인라벨링규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짐

- 금번 회의에는 APEC/SCSC 회원국중 말레이시아,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50여명이 넘는 대표단이 참석하여 동 회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그린빌딩 인증, 스마트그리드 규제협력, 표준교육 등에 관한 회원국들간 정보 및 경험 공유에 관심이 지대
- '스마트그리드 호환성' 규제협력 및 '그린빌딩 인증' 분야의 논의와 회원국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서, 아국의 '11~'12년도 활동 전략 및 회원국과의 협력방안에 심도있게 준비할 필요가 제기
- 아국이 APEC/TILF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'전략적 표준교육 프로젝트'(CTI37/2010T) 3단계 과제에 6개국 15개 대학이 시범교육으로 참여할 것을 보고하고, 향후 일정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
 - 한국에서 TILF 프로젝트로 수행한 표준교육 3단계 사업(시범교육)에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15개 대학이 참가하였으며, 회원국들은 2차 SCSC 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인 시범교육의 결과보고에 큰 관심과 기대를 표명
 - 한국에서 TILF 프로젝트로 수행한 표준교육 3단계 사업(시범교육)에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15개 대학이 참가하였으며, 회원국들은 2차 SCSC 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인 시범교육의 결과보고에 큰 관심과 기대를 표명
 - 한미 공동으로 2.28(월) 주관한 표준교육워크숍에는 미국 상무성 차관, 미국표준협회 회장 등의 기조연설과, 미국, 일본, 페루, 중국, 캐나다 등 14개 회원국의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석하여 표준교육의 다양한 주제와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성황리에 개최

- 무역투자위원회(CTI)에서 APEC 규제선진화 시범주제로 논의 중인 스마트그리드 규제협력, 녹색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개최된 그린빌딩 컨퍼런스에서 회원국의 관심이 집중된 '그린빌딩 인증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'를 위한 표준적합성 분야의 협력이 주요의제로 논의됨에 따라 향후 APEC 협력 추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필요
- 미국, 호주, 뉴질랜드, 멕시코, 칠레 등 역내 와인생산국이 중심이 되어 와인규제협력포럼을 구성하고, 와인관련 규제조화 방안, 와인무역 촉진, 소비자혼란 방지, 식품안전성 촉진, WTO 원칙과의 연계를 위한 논의가 증대됨에 따라 식약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입국으로서 아국의 대응방안을 정립할 필요
- 식품안전 관련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 및 프로젝트의 증가로 향후 식약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. 특히 SCSC 총회와는 별도로 '11.5.13~18일에 미국 빅스카이에서 식품안전 관련 컨퍼런스 및 포럼 회의가 개최될 예정임으로 식약청 등 관련부서에 이에 대한 준비 및 참여 요구
- 2011년도 2차 SCSC 회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'11.9.14~21일에 개최키로 하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요청
 - 2차 SCSC 회의와는 별도로 식품안전 및 전기전자MRA 관련 회의 및 행사가 '11.5월에 각각 미국 몬타나주와 일리노이주에서 개최